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님 여러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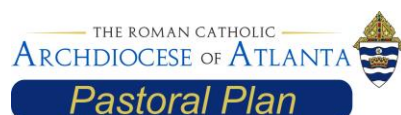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우리 대교구는 한마디로 한 가족입니다. 모든 가족이 그렇듯이 주기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이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대화는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두가 다 건강할 때 가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자기 도취감에 빠져 있을 때는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 년 전 애틀랜타 대교구를 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대화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교구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주로 대교구의 구조, 본당 시설, 사도직 영역, 업무 관행 등을 다루고, 애틀랜타의 69 개 카운티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모든 차원에서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기획은 긴요한 것이었고, 또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참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발된 계획을 통해 우리의 본당, 준본당,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검토가 완료된 이래로 조지아주 북부와 중부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신앙 공동체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기회들이 무엇인지 좀더 명백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사목 계획(Pastoral Plan)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구의 사목 계획의 기초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분을 친밀히 알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희망은 살아납니다. 깊은 기쁨이 시련과 비극 가운데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행복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신앙을 알고, 살며, 나누는 것은 모든 세례받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교회 안과 밖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예수님께서 오신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사목 계획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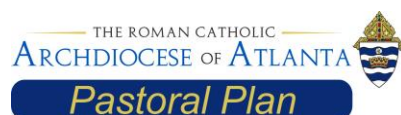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것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살아야 하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2014년 3월에 저는 현재 교회에 출석하든 냉담하든 상관 없이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우리 대교구를 위한 새로운 사목 계획을 분별하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십사 하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목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도 그 계획을 세우는 일에 포함되었나?”,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었나?”하는 질문을 듣거나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목 계획 안에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사랑이 여러분 각자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행됨으로, 조지아주 북부와 중부지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 가족의 한 일원임으로서의 친밀감을 느끼고 이 비전 선언문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시점이 또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드린 여정을 막 시작하는 즈음에 보편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시노드(Synod: 세계주교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최초로 신자들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평신도와 수도자와 성직자 간에 활기찬 새로운 협조의 정신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교구의 가족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갈망 덕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특별 시노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우리 대교구의 사목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사이에서 무려 2만 여 가정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관대한 응답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감동적이며, 압도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본 대교구의 모든 신자들 사이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기 위한 열망이 있으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목적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망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로서 제가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서로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서로 서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모두 공감하였고 그리고 같이 나누어야 할 책임감을 갖는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현존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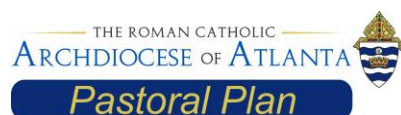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가톨릭 신앙생활의 네 가지 영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 우리의 신앙을 아는 것
- 우리의 신앙대로 사는 것
-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지키는 것
- 우리 본당의 발전

이 네 영역을 확인한 뒤, 저는 우리 대교구 안에 있는 본당들에게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행동방침을 제안해주시는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모든 본당에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그 결과 모두 400 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대교구 차원에서 12 차례의 개별 회의를 개최하여 각 본당들의 권고사항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 대교구 안에 있는 10 개 지구의 각 본당 대표들과 종신부제, 수도자, 사제들이 함께 참가하였고, 2 년마다 열리는 사제회의 전체가 이를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습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를 망라한 우리 가족구성원 모두가 과연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열망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열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들에서 수집, 수렴된 의견을 통해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본당들에서 사용되었던 많은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적으로 입증된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 폭 넓게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 가톨릭 공동체와 그 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교구 안에 있는 69 개 카운티의 모든 신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기도하면서, 향후 5 년 동안 우리 대교구의 지침이 되어 줄 사목계획에 담긴 저의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하고 훌륭한 신앙공동체 구성원 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와 헌신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앞으로 더욱 논의해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이 사목계획의 지속적인 열매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복음 28: 18-20)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본당들 간에 그 모습 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각각은 모두 보편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제 각각 독특한 문화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모아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권고사항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목계획을 세운 목적은 이 계획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고 훌륭하게 명확히 표현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데에 있어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우리의 신앙을 알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둬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 [신명기 6: 6-7]

우리가 들은 것 - 신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애틀랜타 대교구가 풍부하고 활력있게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제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큰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지만, 그들이 가톨릭교 교의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주님과 개인의 관계를 발전해 나아가며,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려면 그들 안에 먼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에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모든 형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의 가르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가르치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칫 어렵고 경직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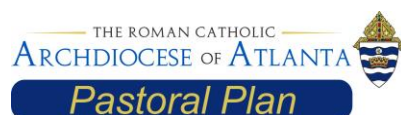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신자들이 더 배우고 영성이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 생활에 대해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즉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분별 회의의 권고사항

우리는 다음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오늘날 가족 단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신앙형성에서 가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족형성모델의 도입과 실천
- 성인 교리에 우선순위 부여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 봉사의 날, 영적 활동, 친목 행사 등에 한 가족으로서 본당생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제공

우리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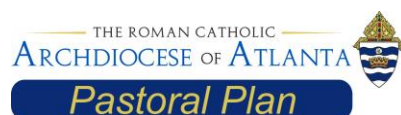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신앙 전파의 특별히 은혜로운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 2013 년 7 월 26 일,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축일]

신앙 형성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는데 지극히 중요한 일에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톨릭 가정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교리 프로그램 제공 또한 새롭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제와 신자들 모두로부터 가정 교리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 전파를 위해 우리의 본당들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나이나 혹은 삶의 여건과 상관 없이 풍부한 가톨릭 신앙을 배우고 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당 종교학교들과 가톨릭 학교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교훈이 시작되고 유지되며, 강화되고, 삶으로 실천되는 장소는 다름 아닌 가정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형성이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가정에서 이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가톨릭 가정에서 먼저 자신들이 속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교리, 봉사 및 친목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당들 역시 접근하기 쉽고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공동체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획 되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신앙 형성 모델과 접근방법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여, 교구청에서는 각 본당에서 현재 실시 중인 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현행 본당 종교학교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양육을 받는 특별히 은혜로운 장소인 가정’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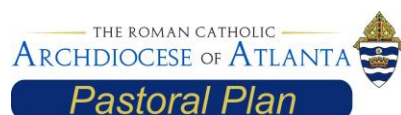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답이 기대되는 시대와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교구에서 초고속 환경에서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구청의 지원을 통해 본당들과 준본당들에서는 이제 어떤 장소, 어떤 날짜, 어떤 시간에도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개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 성사 때에 우리 모두 이런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이 아기의 세례를 청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까?”

진정 이 책임은 우리 가톨릭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 교육 과정은 이 과정에 첫걸음을 떼는 사람들과 평생 동안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낙담, 죄, 무지, 가르침에 대한 저항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위협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려주신 풍부한 신앙을 전파하는데 있어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당은 특별한 봉사 기회, 전례, 영적 훈련, 가족중심의 친목행사를 통한 가족 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요 목적은 먼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우리의 신앙대로 살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우리가 들은 것 - 신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우리 주님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들의 중요성 역시 가난하고 병들고, 심령이 약하고, 차별받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숭선수범을 따릅시다.”

“우리가 믿는 것을 왜 믿는가에 대한 더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심장과 머리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규칙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규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봉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하는 십자가의 길,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함께 하는 가족의 성시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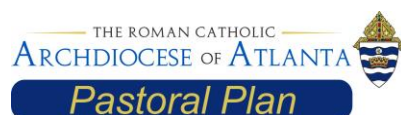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성서 공부와 성서의 실천적 해석을 통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점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주일미사에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별 회의의 권고사항

우리는 다음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교회의 가르침 뒤에 있는 이유, “왜”에 대한 이해 증진
- 신앙의 실천을 위한 자선과 봉사의 중요성 강조
- 더 깊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 독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 본당 내 연대 의식 및 신자들의 본당 소속감 고취

우리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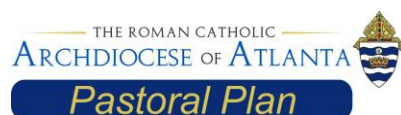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쉽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역시 양육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개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와 일치, 즉 각 제자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삶으로 드러나는 일치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들은 믿음의 등불로서 복음을 실천하여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응은 가르침을 통하여 그 구조와 의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최근에 교황께서 하신 질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 사목계획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종종 사회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주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우리는 언젠가 이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 각자가 더 깊고 풍성한 가톨릭 신앙에 의해 감화감동 받을 때에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인간 관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본당과 준본당에서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실시되어 온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지역 교회 전반에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성당과 더 폭넓은 공동체에서의 사회정의를 위한 좀더 분명한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부정의의 체계적 원인 규명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성가의 가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살아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당과 준본당은 이러한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각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과 가정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당과 준본당이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환영함으로써 모두 동일하게 하느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지키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오복음 28: 19]

우리가 들은 것 - 성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더 큰 그물을 던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환영함으로써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야 합니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에 선뜻 다가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포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하고 계신 일도 이것입니다. 교회에 한번도 와보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냉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이끌기 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십대들 중 너무도 많은 수가 견진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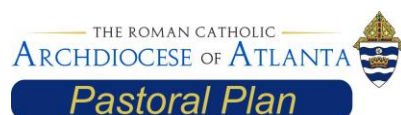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TV, 라디오, 기타 미디어 등을 통해 가톨릭 교회를 더 잘 홍보해야 합니다. 다른 기독교 교회들은 이 분야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다가갑시다.”

분별 회의 권고사항

우리는 다음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소규모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인프라 신장과 제공을 통해 이들 그룹의 구성원들이 교회와 연결되도록 지원
- 새로운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교회가 이 시대에 가톨릭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
- 온 가족 프로그램 고양을 통해 본당 신자들이 본당에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 가톨릭 교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룹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정식 구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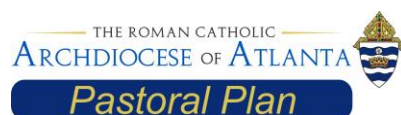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우리의 비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도 어긋나고 심지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연결되고, 참여하고,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표준이 아주 예전의 표준적인 모습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소규모의 신앙 나눔공동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했고, 안전이라는 매우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런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소규모 신앙공동체의 강력한 전통을 육성하여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 전파를 위해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세워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소그룹들이 본당의 전례를 대신하거나 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 성체성사, 성체성사를 위해 모였을 때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더 정확하게 구현되는 때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은 우리의 힘과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금 확인을 받습니다. 좋은 예배는 자석과도 같이, 전례에 참여하는 이들과 기도로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는 모든 이들을 한 자리로 이끕니다. 전례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의 근원이자 정점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례에 진정한 경외, 환영, 따뜻함, 영감이 있을 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이며 주님이신 그 진정한 가정으로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좀 더 완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좋은 예배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복음화입니다.

봉사 계획안과 프로그램들은 모든 연령대의 가톨릭 신자들이 본당들과 공동체들에 더욱 참여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계획안들의 대부분은 지역 공동체에서 수행되며, 그 중 일부는 우리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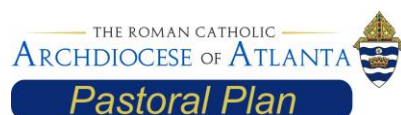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본당과 준본당에서 후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여행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성빈첸시오회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본당의 성인들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활동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나의 신앙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도록 나를 부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자들에게 가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의 талан트를 자신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행사를 통해 그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명을 받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미사에서 청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 수화 통역을 하거나 저희 대교구에서 개최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토니의 캠프’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도 그런 기회에 속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각 본당과 대교구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달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난 이천 년 동안 빠르게 그리고 멀리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소셜 미디어와 기술을 더 잘 사용해서 이 좋은 소식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한 때 본당은 가톨릭 가정과 공동체의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것은 여전히 사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권장해야 합니다. 가정과 본당의 관계를 지원하고, 활기를 주고, 세워주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황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는 방식, 신체적 질병,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 물질 또는 다른 도전 때문에 소외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났던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우리 성당의 발전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라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사도행전 2: 9-11)

우리가 들은 것 - 성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우리 교회의 시설은 우리 규모의 본당에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합니다. 미사에 앉을 수 있는 좌석 수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큰 회의실 규모가 150 인 정도입니다. 이러한 규모로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거의 모든 고용인들이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통합을 위해, 아주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본당들 안에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만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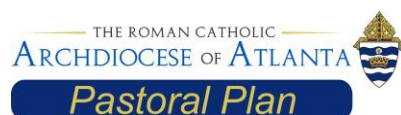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우리 사제들의 영적인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별 회의 권고사항

우리는 다음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자격 있는 평신도와 부제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제들은 성사와 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지구 내에서 사도직, 직원, 성직자 자원을 공유하도록 장려
- 본당 내에 모든 문화를 환영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우리의 비전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사목 계획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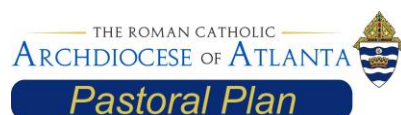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현재 우리 대교구 가정 안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충분한 예배와 회의 공간, 성사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대교구의 최대 우선순위이며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또한, 이는 너무도 많은 교구에서 예배장소의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한 대주교가 직면한 가장 “행복한 문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신자들을 예상하여 세워진 본당들 가운데 현재 신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미사를 드리기도 전에 좌석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교구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재분배하여 성장 지역에서의 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교구에서는 재정과 지원 팀 모두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교구는 많은 훌륭한하고 거룩한 사제분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사제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본당들을 섬기는 사제들의 수에 비해 신자들의 수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제분들 중 많은 수가 행정적 책임을 덜어주어야 하는 연령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교구는 본당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는 자격을 갖춘 부제와 평신도 행정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해서 성사를 제외한 기타 책임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본당과 준본당은 각자가 속한 지구 안에서 신앙 형성 조성, 행정 서비스, 심지어 회의 공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청 사무실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애틀랜타의 69 개 카운티의 변화하는 인구동향을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들이 이런 다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교구는 새로운 수단을 발굴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교구 내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대부분의 카운티는 더 이상 전체 카운티 인구의 50 퍼센트 이상을 단일 인종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당”의 개념이 문화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성당의 발전은 각각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영향 받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험 역시 문화권에 따라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들이 이러한 현실에 계속해 적응해 나감과 동시에, 모든 신자들의 사목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방법을 이웃 본당들과 공유해나가야만 합니다. 교구청 역시 우리 본당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발전 단계에서 본당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지역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교회에서 본당 생활에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최고의 실행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사목 계획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이행과 결론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목 계획의 의도는 그 이행의 세세한 뉘앙스까지 일일이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역시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별 회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 권고사항의 내용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마다, 자신이 속한 본당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교구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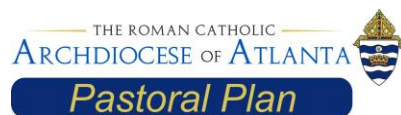
여러분의 대교주로서 저는 우리의 사제, 평신도 지도자, 위원회 및 교구청 직원 모두와 함께 본 사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의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우리 대교구 내의 10 개 지구의 대표 분들과 함께 만나 사목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본당과 준본당에서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또 시도해 줄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성공적 개념과 새롭게 창조될 개념들에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저는 각 본당과 공동체의 노력의 성공을 우리 10 개 지구를 통해서 나눔으로써 우리 전체 대교구와 그 너머에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0 개 지구에서는 회의 시간의 일부를 이러한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향후 진전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공유하는데 할애해야 합니다. 협조와 책임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장 신부께서는 참사회의와 대교구사목회의에 이러한 노력의 진전상황을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목 계획의 이행은 향후 5 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실질적인 이행과정이 본당들과 지구들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대교구 사무실과 직원들 역시 본당들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구 신문 (*The Georgia Bulletin*), 저희 웹사이트 및 기타 미디어를 통하여 이 중요한 중심 영역들에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성과에 대해 매년 업데이트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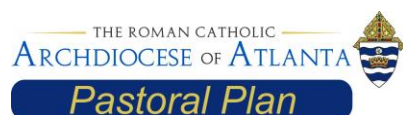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 지역 교회의 생명과 유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노력의 성공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초대합니다. 우리 대교구는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талан트를 사용하여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알고, 우리의 신앙대로 살며,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성당의 발전에 참여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목 계획을 이행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모든 본당신부들과 준본당신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사목 비전을 본당과 준본당의 모든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 본당 내에 각자 맡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 현재 실행을 검토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다른 본당과 공유할 수 있는 이행팀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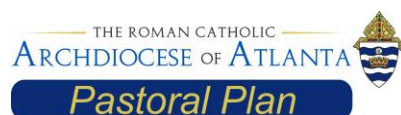
우리 교구청 지도부에 부탁드립니다.

- 이 사목적 비전의 우선순위가 직원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본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본당과 준본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변화와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 사목 계획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 본당과 준본당에서 사목 계획 관련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제공
 - 본당 내의 모든 문화권을 환영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다문화 사무실 창설
 - 지원 사도직 (Advocacy Ministries) 재정비
 - 2015년 10월 1일까지 교구청은 디지털 네트워킹 전략을 개발하여 본당과 준본당이 좀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사목 계획 과정이 성공을 거두도록 저와 함께 매일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애틀랜타 대교구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히 축복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윌튼 D. 그레고리 (Wilton D. Gregory)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사목 계획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Atlanta) 대교구 사목 계획

애틀랜타 대교구장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사목 계획